

# 한국불교를 세계로

### ■마리보는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10월 18일 개막하는 2005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지지심경>을 비롯한 불서 전시, 조선불화전, 참선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우리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우창, 이하 조직위는 세계 110여 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 인문화로 불교를 꼽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엔터 코리아(Enter Korea)'를 주제로 도서전과 문학·학술, 공연예술, 전시, 스포셜 프로젝트 등으로 나눠 치러지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미리 살펴본다.

#### ● 도서전

한국 출판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간터널: 한국 출판의 역사'에서는 <지지심경>과 <팔만대장경> 등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이모저모를 엮어 온 불경(佛經)간행 역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지들의 선사상> <깨달음의 겨울-선가교감> <Korean Buddhism> 등의 불서가 포함된 '한국의 책 100'과 <삼국유사> <사찰 꽃살문> 등이 포함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 등에서는 1천800여 권의 책이 전시될 예정이다.

#### ● 불서·불화전

#### ● 참선체험 등

#### ● 문화행사 마련

#### ● 전시회

10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프랑크푸르트 시립공예미술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우리 불교회화와 불교 공예품을 선보이는 '영혼의 여정-조선시대 불교회화전'이 마련된다. '지옥'과 '정토'라는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아미타불회화와 사물회화, 감도량, 시왕도 등 17-18세기에 제작된 30여 점의 불교회화와 공예품이 전시된다. 지옥에서 정토로 이르는 민중들의 염원과 수행 과정을 조선불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9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프랑크푸르트 통신판물관에서는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구텐베르크박물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국의 옛 인쇄문화전'이 열린다.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지지심경>과 동서양 금속 활자본, 인쇄기계, 전통 한지의 제작과정이 선보인다.

#### ● 스포셜 프로젝트

이번 도서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선(禪)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선: 한국의 정신'. 시립공예박물관에서 두 차례의 강연이, 도서전이 열리는 주빈국과 이벤트홀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참선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이번 선 특별전이 유럽인들에게 생소한 선사상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고, 선비감으로만 남아 있던 우리나라 종교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0월 19-23일 프랑크푸르트 메세 주빈국관과 메세 카페테리아에서 열리는 '한국 음식 축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차와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다. www.enterkorea.net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최고기업 일군 '인과법 경영철학'



카르마 경영 이나모리 가즈오 지음 | 김형철 옮김 | 서돌 | 1만2천원

연구에 몰두했고 최첨단 세라믹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차린 그는 직원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출로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쳤다. '경영의 신(神)'으로 불리는 이 책의 지은이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인생 전반부의 모습이다.

회사 생활을 청산한 그는 27세에 자본금 300만엔(3천만원)으로 '교토 세라믹(교세라) 명칭 변경'을 설립했다. 그는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교세라'를 반평생에 걸쳐 세계 100대

기업들이 한창 부동산 투기에 열안이 되어 있던 거품 경제 때 일화를 들려준다. 당시, 많은 일본 기업들은 떠나 할 것이 토지를 소유하고 전매하는 방식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있었는데, 교세라에도 '돈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해보라.'라는 유혹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토지를 좌지우지해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것은 위험하고도 헛된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땀 흘리며 스스로 번 돈이 진짜 이익이다.'라는 원리 원칙이 있었고, 그 원리 원칙에 따른 결정은 일본에서 거품이 꺼진 후 수없이 많은 기업이 여러

## '경영의 신' 日 교세라 그룹 이나모리 명예회장

## '원리 원칙 충실하면 결과 따라온다' 믿고 실천 버블붕괴·장기불황에도 끄떡없이 사세 확장

기업으로 일관해 후 올해 7월 모든 것을 출혈 털어 버리고 탁발승이 됐다.

또 현지 이사를 설득해 퇴직금을 적게 받고, 그나마 받은 퇴직금 60억원마저 대학 등 교육기관에 회사하기도 했다.

해고가 없는 기업을 일군 바람직한 기업가인 그의 경영원칙은 매우 단순했다. 바로 원리 원칙에 충실하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순진한 믿음이었다. 이 고지식한 경영원칙은 교세라를 90년대 일본의 버블붕괴 후 장기불황 불황까지 견뎌내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책은 진정한 기업가의 삶과 경영에 대한 솔직하고 담백한 철학을 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원리 원칙에 따른 경영의 한 예로, 일본

음을 겪는 데 반해, 교세라만큼은 굳건히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개인이나 기업이 쉽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원리 원칙'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어쩌면 요령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보며 걷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확고한 철학에 근거한 행동의 결과는 결코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게 그의 경영 지론이다. 그러므로 그는 후배 경영인들에게 이 책을 통해 순수하고 맑은 마음과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충고한다. 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충고한다.

김주열 기자 jkim@buddhapia.com

## 선비정신으로 본 코리아 노블리스 오블리제



명문종가 사람들

이연자 지음 랜덤하우스코리아 | 1만8천원

<명심보감>과 <주자기계> 그리고 전통문화연구가인 이연자씨(한배달 우리문화회장의) <명문종가 사람들>이 가진 공통 키워드는 뭘까? 그것은 아마도 충·효·예(忠·孝·禮) 또는 선비정신인 아닐까 싶다.

이 책은 지은이가 최근 17개월 동안 탐방한 우리나라 종가 19곳의 예법과 그들 나름의 독특한 모습과 정신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명문 종가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그 안에 깃든 전통 문화를 섬세한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종가의 내림음식과 차, 복식 등의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고택의 아름다운 모습을 글과 사진으로 담았다.

이 책은 직접 발품을 팔아 완성한 테마여행 안내서이기도 하다. 독자들이 이 책을 들고 직접 종가를 찾았다면 종가의 발자취를 백배 더 느낄 수 있다. 만석준 집안이었

던 밑양 손자 종가에서는 전통 7첩 반상을 받을 수 있고, 전주 이씨 이극순 종가에서 붓글씨로 쓴 가훈을 받을 수 있다. 박물관으로 거듭난 오리 이원익 정승의 종가에선 창백어 정신을 배울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황희 정승의 청백사상을 기증으로 여겨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해 검소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지키는 황희 종손의 모습도 소개돼 있다. 또 백성들이 힘들어 농사지은 쌀 한 톨도 축내지 않았던 안행어사 박문수의 뜻을 기려 떡 없는 제사를 올리고 있는 후손들의 고집에는 오히려 읽는 이의 머리가 숙연해진다.

이연자 원장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전통을 꿋꿋이 지키는 선비정신을 되살려 진정한 한국적 노블리스 오블리제(세는 신본일수록 도의상의 의무가 따를 때 널리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노병철 기자

### 새로나온 책

■<무경계> 켄 윌버 지음, 김철수 옮김, 무우수, 1만2천원 = "우 리 스스로 정신과 신체 사이에, 혹은 유기체와 환경 사이에 경계선을 그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자신의 정체감을 제한해 왔다. 이 경계선을 하나씩 제거할 경우 본래의 경계 없는 자기, 무경계(無境界)를 실현할 수 있다."

인류의 영원한 의문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 동서양 사상을 집목한 통합심리학(Integral Psychology)의 창시자인 미국 철학자 켄 윌버는 불교의 공(空) 사상과 서구의 과학, 신학, 경제학 등을 두루 아우르며 이 의문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 가고 있다. 생화학의 전공하던 윌버는 '세계의 지혜 전통'을 탐구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일본 선사와 티베트 린포체 등의 지도로 수행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동서양의 심리학을 통합시키는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구축했으며, 현재 과학과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통합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 ■<그대 자신을 알라>

마하리쉬 지음, 나타라잔 엮음, 김병채 옮김, 슈리크리슈나다스 아쉬람, 1만원 = "무엇이 죽음인 나인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망각하는 것이 죽음이다." 남인도의 성산(聖山) 아루나찰라에서 깨달음을 전파했던 마하리쉬 슈리 라마나 마하리쉬(1879-1950)의 법문집. 마하리쉬가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 30여 편을 가려 담았다. '구루' '죽음 체험' '의식의 흐름' 등 각 주제에 대한 마하리쉬의 법문을 읽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덧붙였다.

#### ■<영혼의 음식>

이도경 지음, 소금나무, 1만원 = 명상요리 연구가이자 건강관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도경씨는 음식이란 단순한 육체적 먹을거리를 넘어 '영혼의 음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식과 자연식을 바탕으로 한 '소울푸드(soul food)'를 통해 심신영(心身靈)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무엇을 섭취하느냐"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이끌고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식위배 조리실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도 소개한다.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경의 세상을 통해 깨우쳐주는 이 시대와 가장 친한!
대한문화를 전파한 선사(선종)의 가르침을 담은!
당시: 매일 12시부터 12시 12분
www.zenmagazine.com
02-522-0122, 011-785-0122

## 수맥과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화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시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두뇌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들 관통하고 종파로 발생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를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 오마니 반메움 건강벨트

축복의 벨트! 성공의 벨트! 지혜의 벨트!



음악의 조화로 만사가 행통한다는 오마니 반메움 건강벨트가 불교 법구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나쁜곳에 빠지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3불의 지혜를 받아 해결되고,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시작부터 끝이 하는일 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담은 법구벨트다. 또한 일반벨트와는 달리 건강기능을 갖춘 벨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생되며 허리와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멜토에너지까지 발생하는 천연가족오르본 고품격 고급벨트로 만사 행통하는 선물로 품위가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부패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뿔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못받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물만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 등, 수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의 번영하고 사업장에서의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과 감정 개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

## 금강저의 영험

협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협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화성은 가방속에 넣으면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5